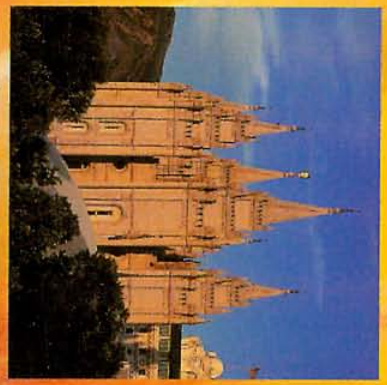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9 1997

별책 부록 : 어린이란



9 1997

성도의 벗

표지 설명:
템플 스퀘어에 관한 특집 기사가 34쪽에 나와 있다. *뒷표지*: 브라질 상파울루의 요사벨 브라칼레 자매는 교회에서 가장 독특한 선교부 중 하나인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는 많은 자매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이다. 44쪽의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부" 참조
(표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어린이란 표지:
그림: 그레고리 시버스, *씻음의 날*

일반

2 대관장단 메시지: 눈물과 시련과 믿음과 간증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8 거룩한 협력 관계 에스 마이클 윌콕스
10 체코 성도들: 더욱 밝은 날 카힐리 메르
15 지리와 올가 스네데르플레르: 불굴의 개척자 부부 집중 탐방기 마빈 케이 가드너
34 템플 스퀘어

청소년란

28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33 몰몬 메시지: 네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44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부 매리앤 마틴데일과 제니퍼 그랜트 애브셔

정기 특별 기사

1 애독자 편지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예언의 은사
32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어린이란 (별책 부록)

2 탐험: 나부 성전 셰리 존슨
5 노래: 예수 침례 받을 때 진 피 로울러
6 친구가 친구에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8 함께 나누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캐런 애쉬튼
10 이야기: 버섯 따기 올가 불가코바 페트렌코
13 심심풀이
14 친구 사귀기: 체코 공화국, 프라하에 사는 룩 크루틸 콜리스 클레이튼

어린이란, 10쪽 참조

34쪽 참조

성도의벗 1997년 9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판,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스펜서 제이 콘디, 엘 라이오넬 캔드릭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올런 알 윤이보그

편집스탭: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할 빌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디앤 워커
편집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부장 :메리앤 마텐데일
제작보조 :베스 데일리

디자인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끼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디자이너 :셔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예산 관리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스, 데니즈 커비, 메튜 에이치 맥스웰

구독담당스탭: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터슨
부장 :조이스 핸슨

통 권: 제378호, 제34권, 제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7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한상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September, 1997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7989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21,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27,000원, 3지역(중동 등) 35,400원, 4지역(중남미 등)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14.00 per year.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old address and new one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 O.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016-0368, USA. Subscription Help Line: 1-800-453-3860, U.S. ext. 2947; Canada ext. 203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좋은 친구

저는 1996년 11월호에 실린 "제니의 기적"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제니와 마찬가지로 친구가 별로 많지 않은 소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최근에 침례 받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몇몇 친구들은 더 이상 그녀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저의 친구들 가운데 일부는 왜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저는 정말 무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제가 그 소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익명

회원들이 하나가 됨

저는 러시아 우랄 산맥 지대의 펌에 살고 있습니다. 1996년 3월에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때,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만나기 4개월 전에, 저는 남편과 부모를 잃었고,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저에게 몰몬경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의 모임에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의 회원들과 친구가 되었고 침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격려합니다.

저는 *리아호나*(러시아어 판) 한 부를 받았습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통해 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로부터 받는 격려와 간증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참되고 *리아호나*가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마가리타 안드레이브나 루사노바,
펌 센트럴 지부,
러시아 에카테린브르그 선교부

주님의 사업을 함

현재, 저는 복음 선교사로서 주님을 대표합니다. *리아호나*(헝가리어 판)를 읽을 때, 저의 간증이 강해집니다. 저는 제가 주님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구세주께서는 그를 통하여 저를 이 사업에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체기 스노도르듬 장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부

일용할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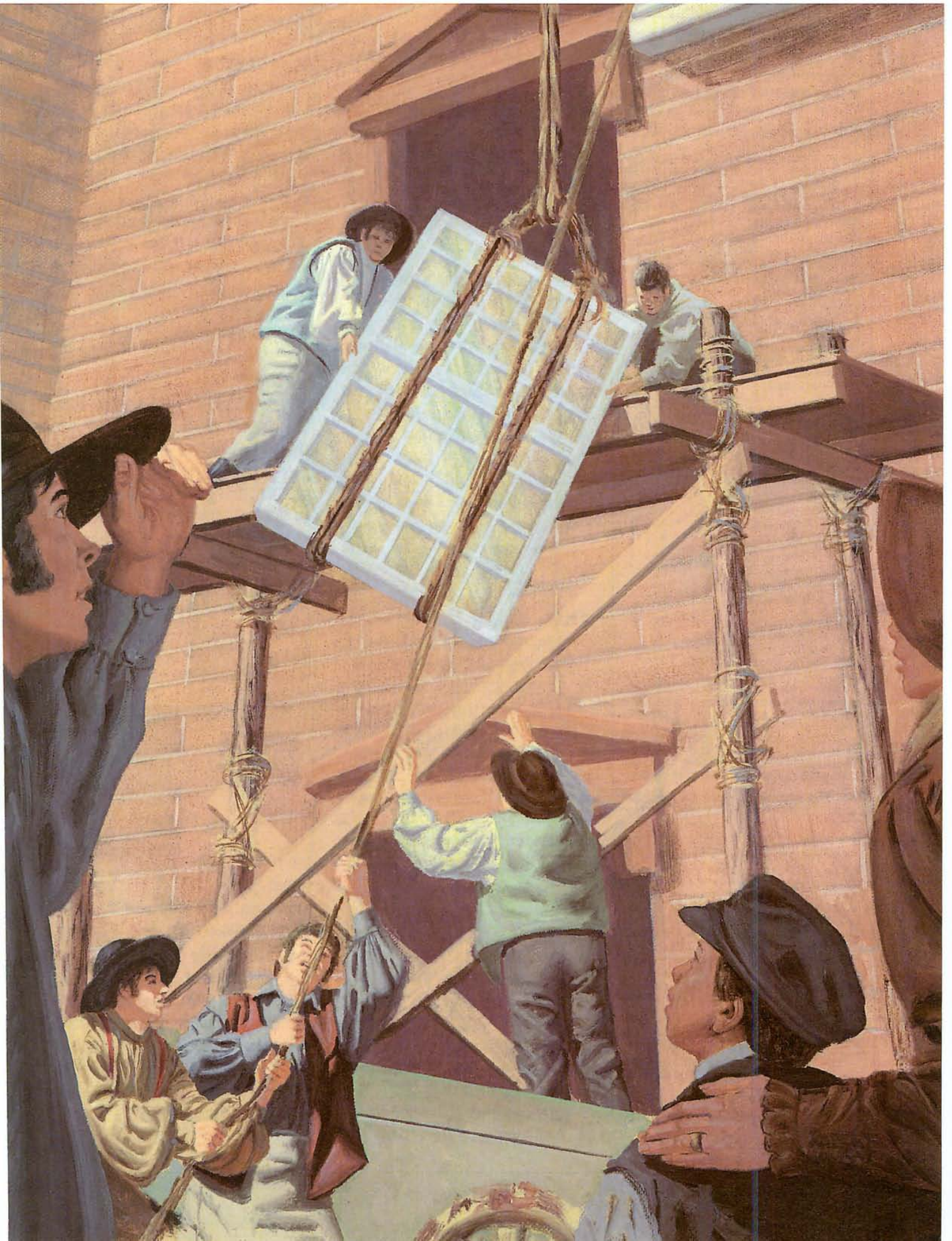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복음대로 생활하고자 매일마다 노력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 책에서 찾기를 바라면서 1996년 9월호를 읽고 있다가, 뒷표지에서 생명 나무에 대한 리하이의 시현을 묘사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리아호나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쇠막대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것을 압니다.

로사 마라 가르카 배나,
말라가 제 1지부,
스페인 말라가 지방부

신앙의 빛

저는 교회 회원이 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리아호나*(러시아어 판)는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리아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는데, 행복하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 주는 깊은 지혜를 항상 발견합니다. 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단순한 생활 체험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분과 맺은 성약을 비추는 위대한 신앙의 빛을 발견합니다.

스베트라나 누즈도바,
사라토브 자보드스코이 지부,
러시아 사라토브 지방부



눈물과 시련과 믿음과 간증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각자가 지닌 잠재력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태버내클과 성전들은 돌과 모르타르와 나무와 유리 이상의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16)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던 초기에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의 모뉴먼트 파크 웨스트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저의 동반자가 되신 분은 본부 복지 위원회의 일원인 폴 시 차일드 형제님이었습니다. 차일드 부장님은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 분은 제가 아론 신권을 지닌 청소년이었을 때 저의 스테이크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함께 스테이크 대회의 방문자가 되었습니다.

말씀할 차례가 되자 차일드 부장님은 교리와 성약을 들고 연단을 떠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신권 소유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 분은 18편을 펴고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0, 15)

그런 다음 차일드 부장님은 경전에서 눈을 들고 신권을 지닌 그 형제들에게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분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 또는 고등평의원에게 답을 말하도록 하지 않고 대신 장로 정원회 회장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형제는 약간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질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 형제는 "차일드 형제님,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차일드 부장님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정원회 회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잠시 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차일드 형제님, 인간의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 대답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일드 형제님은 연단으로 돌아와서 제게 몸을 굽히고 "정말 의미 심장한 대답이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셨지만 저는 그 영감 받은 대답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도록 준비시키신 귀중한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쉽게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눈물과 시련과 믿음과 간증이 선행됩니다.

구세주께서 자신의 사도들에게 주신 다음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19~20)

구세주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던 그 사람들은 지주도 아니었고 학식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을 지닌 헌신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신앙개조 1:5)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린도전서 1:26~27)

미대륙에서도 앨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이와 비슷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앨마서 37:6)

1830년 4월에 피니스 영은 예언자 요셉의 동생이었던 사무엘 스미스로부터 몰몬경 한 권을 받고 몇 달 후 북쪽의 캐나다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킹스톤에서 회복된 교회에 대해 미국 국경을 지난 곳에서는 최초로 알려진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증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이 장엄한 약속은 집사 정원회와 교사 정원회와 제사 정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 받는 아론 신권 형제들을 떠받쳐 줍니다. 그 약속은 그들로 하여금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격려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좌절의 시기에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이와 똑같은 확신은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형제들이 와드와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일을 이끌고 관리할 때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며 영감을 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교리와 성약 64:33~34)

변치 않는 신앙과 충실한 믿음과 열렬한 소망은 언제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성이 되어 왔습니다.

복음의 회복에 따른 초기의 선교 사업은 이러한 이야기의 전형입니다. 1830년 4월 초순에 피니스 영은 예언자 요셉의 동생이었던 사무엘 스미스로부터 몰몬경 한 권을 받고 몇 달 후 북쪽의 캐나다로 여행했습니다. 그는 킹스톤에서 회복된 교회에 대해 미국 국경 넘어 최초로 알려진 간증을 전했습니다. 1833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과 프리맨 니커슨은 북부 캐나다의 플리잔트 산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그 곳에서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교회 지부를 조직했습니다. 1835년 6월에는 십이사도 중 여섯 명이 동시에 그 땅에서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836년 4월에 히버 시 킴볼 장로와 다른 사람들은 팔리 피프랫의 집으로 가서 프랫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의 영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대는 북쪽 캐나다의 토론토로 갈지어다.… 그 곳에서 그대는 충만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게 되리라. 그들은 그대를 받아

들이리니 그들 가운데서 교회를 조직할지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기쁨으로 가득차게 되리라. 이 성역의 결실이 자라나서 복음의 충만함이 영국으로 퍼져나가며 그 땅에서 위대한 사업이 행해지게 하리라."(*팔리 피 프랫 자서전*[1985년], 110쪽) 1987년 7월에 영국에서는 그 곳에서 선교사업이 시작된 지 15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초기 선교사들과 주님께서 이 말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준비시키셨던 사람들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기뻐합니다.

봉사하라는 부름은 언제나 주님의 사업의 특징이 되어 왔습니다. 편리한 시기에 부름이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가져다 주고 기도하도록 만들며 헌신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커틀랜드로 가라는 부름이 왔습니다. 계시가 뒤따랐습니다. 미주리로 가라는 부름이 왔습니다.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나부로 가라는 부름이 왔습니다. 예언자가 순교했습니다.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분지로 가라는 부름이 왔습니다. 시련이 손짓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행된 긴 여행은 신앙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눈물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된 신앙은 믿음과 간증을 통해 남겨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희생을 헤아리실 수 있으며 그 슬픔을 측량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이나 그때나 그분을 섬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은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주고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며 우리의 행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잠시 멈추어 거룩하게 주어진 다음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심부름하는 자라. 너희가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니라."(교리와 성약 64:29)

그러한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깊은 애정을 갖고 기억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죽음의 계곡에서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올드 레인저로 알려진 그 해설자가 서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바로 우리 거실에 서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번은 그 프로그램에서 올드 레인저가 세인트 조지 태버내클의 창에 끼울 유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유리는 동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뉴욕항에서 배에 실려 긴 항해길에 올라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겪으며 희망봉을 돌아서 미국의 서해안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귀중한 유리는 상자에 담긴 채로 캘리포니아의 샌버나디노로 수송되어 그 곳에서 육로로 세인트 조지까지 옮겨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조지의 데이빗 캐넌과 다른 형제들은 마차를 끌고 샌버나디노로 가서 주님의 태버내클을 완공하는 데 필요한 그 유리를 찾아 오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리값을 치르기 위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8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데이빗 캐넌은 아내와 아들에게로 돌아서서 "우리가 태버내클의 유리를 구할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 데이빗 2세는 "아빠, 전 우리가 그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어린 아들은 자기 돈 2센트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데이빗의 아내 윌러미나 캐넌은 모든 여인들이 집 안에 마련해 두는 비밀스런 장소로 가서 은화 3달러 50센트를 찾아 왔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 전체에서 돈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200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필요로 하는 금액에서 6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데이빗 캐넌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 특유의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작은 가족은 너무나 실망해서 잘 수도 없었고, 너무나 낙담해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마차를 몰 사람들이 샌버나디노로 긴 여행을 할 준비를 갖추고서 말과 마차를 끌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6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인근의 워싱턴 지역 사회에 사는 피터 닐슨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데이빗 캐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빗 형제님, 저는 제 집을 증축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당신에게 가져가야 한다고 알려 주는 계속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님에게는 그 돈이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데이빗 2세를 포함하여 모든 남자들이 둘러싼 가운데 피터 닐슨은 붉은 보자기에서 금화를 꺼내어 하나씩 하나씩 테이블에 떨어뜨렸습니다. 데이빗 캐넌이 그 금화들을 세어 보니 모두 600달러였습니다. 유리를 구하는 데 꼭 필요한 액수였습니다. 한 시간 내에 남자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세인트 조지 태버내클에 필요한 유리를 찾아오기 위해 샌버나디노를 향해 마차를 몰아 갔습니다.

그 실화가 *죽음의 계곡에서의 나날*들에서 방송되었을 때 데이빗 캐넌 2세는 87세였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아주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로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그 금화가 하나씩 하나씩 탁자에 떨어지던 소리를 마음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형제나 자매라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참새가 떨어지는 것에도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의 필요 사항을 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태버내클과 성전들은 돌과 모르타르와 나무와 유리 이상의 것으로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묘사한 성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진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린도전서 3:16) 그러한 성전은 신앙과 금식으로 지어집니다. 봉사와 희생으로 지어집니다. 시련과 간증으로 지어집니다.

어떠한 형제나 자매라도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참새가 떨어지는 것에도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의 필요 사항을 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이 격려했던 예언자 요셉에게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 하려느냐? 전진하여 물러서지 말며, 용기를 내라. 형제들아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자"(교리와 성약 128:22)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도록 준비시키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때때로 엄청난 일입니다.

2. 이 사업에 봉사하는 부름은 기도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3. 변치 않는 신앙과 충실한 믿음과 열렬한 소망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성이 되어 왔습니다.

4. 시련과 눈물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된 신앙은 믿음과 간증을 통해 남겨졌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부르신 자를 채워 주십니다.

서로 이 부/1007년 9월 호

거룩한 협력 관계

에스 마이클 윌콕스

딸이 결혼하기 직전에 제게 와서 가장의 축복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더 나아가서 제가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대가 항상 남편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그대는 영원히 남편과 함께 하기를 바랄지어다. 그대는 마음깊이 남편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랄지어다. 또한 그대의 남편이 의롭고 명예롭게 가정을 관리하도록 축복하노라."

이러한 축복을 받은 후에 딸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물론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모든 여성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사랑해 줄 남편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브가 범법했을 때 주님께서 이브에게 주었던 바로 그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브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세기 3:16)라고 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원리를 자신의 생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여성의 신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며, 어떤 남성들은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실로 그것을 잘못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구절의 핵심이 되는 *사모하고*라는 말 대신에 *다스릴 것*이라는 말에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어원은 그 의미를 더하여 줍니다. *사모하고*는 "애타게 바라다, ~쪽으로 손을 뻗다,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구절에 관해서 귀중한 통찰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스린다*라는 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느낌을 줍니다. 저는 *관리한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남편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관리합니다."(*엔사인*, 1976년 3월호, 72쪽)

우리는 주님께서 이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이 언급하신 남편은 바로 아담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여호와를 도와 세상을 창조했던 위대한 미가엘로서 지상에서 주님의 위대한 첫번째 예언자이자 하나님

그림: 델 파슨,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침*

의 의로운 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벌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브에게 그녀가 타락한 세상으로 들어갈 때 고결한 남편의 의로운 사랑을 통해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세상의 전형적인 오해 속에서 이 구절을 받아 들여 남편을 사모하도록 격려하는 태도로 아내를 대하는 대신 아내에게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면허장으로 사용합니다.

199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그 사람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을 어기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2쪽)

연차 대회에 앞서 열렸던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역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신 엠 러셀 밸라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남자는 신권을 받고 가장이 되어야 하며 온유함과 순결하고 가식없는 사랑으로, 또 구세주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처럼 의로움으로 가족을 이끌고 양육해야 한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에베소서 5:23 참조) 남자에게는 가족의 세상적, 육체적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교리와 성약 83:2 참조) 여자는 자녀를 세상에 데려 올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으며,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이끌고 양육하며 사랑이 가득하고 영이 충만한 환경에서 가르칠 중요한 임무와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협력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서로를 지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와 여자에게 상이한 책임을 지정해 주심으로써 이들이 성장하고 봉사하며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갖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들에게 단순히 가족에 대한 개념만을 영속시키기 위해 상이한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90쪽) □

체코 성도들

카힐리 메르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수 회원들은 교회가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수십 년 간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

1990년 이전에, 현재 체코와 슬로바크 공화국으로 나뉜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말일성도들은 전쟁과 공산주의의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신앙의 불꽃을 불태우려 노력하였다. 끝끝내 신앙을 지켜온 그들의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 간 슬라브 유럽에서 교회의 유일한 전초 기지로 남아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 선교부의 이야기이다.

1884년 3월, 유타 주 리하이 시 출신인 토마스 비싱어 장로와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인 폴 해머 장로가 프라하에 첫발을 내디딘 것을 시작으로 회복된 복음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공식적인 전도 활동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선교사들은 사람들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 중에는 새로운 종교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음을 발견했다. 마침내 비싱어 장로는 안토닌 유스트에게 침례를 줄 수 있었다.

1920년대의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미미한 선교사 인력, 언어 장벽, 계속되는 사회적 반대, 교회에 관한 헛소문과 오보 등으로 여전히 교회 성장이 극도로 제한 받고 있었다.

1928년에, 당시 83세된 토마스 비싱어 장로는 선교 사업을 위해 다시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가도록 부름 받았다. 그는 프라하에서 경찰과 정부 관리들을 찾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길이 열렸다고 보고했다.

비싱어 장로가 해임된 뒤, 그의 후임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프란티스카 베셀라 브로딜로바 자매는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에게 편지를 써 선교사를 보내 줄 것을 간청했다.("체코슬로바키아는 그녀의 선교부였다." *성도의 벗*, 1995년 9월호, 26~27쪽) 그녀의 간청으로 키가 크고 열정적인 젊은이, 아더 개스가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 탁월한 기자 기질과 매력적인 목소리를 지닌 개스는 열흘만에 체코어로 방송되는

더 욱 밝 은 날

10분짜리 라디오 대담 2회 참여, 독일어 라디오 방송 초청 연설, 독일 성인-교육 기관에서의 강연 등에 참여했고 독일어 신문에 기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29년 7월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며 유럽 선교부장이었던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여러 교회 지도자 및 선교사 다섯 명과 함께 프라하에 도착했다. 7월 24일 이른 아침에 이들은 600년 간 유구하게 장엄한 자태를 뽐낸 칼츠텐 성 부근의 숲이 우거진 언덕으로 올라갔다. 비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윗소 부장은 선교사업을 위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헌납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는 슬라브 유럽에서 첫번째 선교부가 수립되었음을 선포하고 개스 장로를 선교부장으로 임명했다.

그 후 2년 간, 주로 선교사들이 쓴 250여 개의 기사가 체코 내의 신문, 잡지에 게재되었다. 1929년 10월에 선교부는 첫 체코어 소책자를 간행하고 배포 허가를 받았다.

개스 부장이 선교부 지도자로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바로 아내였다. 윗소 부장은 그에게 마타 크랄릭 코바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녀의 부친은 당시 체코 대통령인 토마스 마사릭과 절친한 사이였다. 1931년에 개스 부장은 마타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의 폭넓은 사회적 인맥을 연

수년 간, 오타카르 보즈쿠브카(위)와, 여러 회원들은 브르노에서 일반인들에게 하계 야영에 관해 가르쳤다. *가운데:* 그들은 그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왼쪽:*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에서 마르틴과 알레나 필카. *아래:* 프라하 도시 전경

사진 촬영: 로버트 제이 산소이저, 마빈 케이 가드너
사진 제공: 마리온 밀러

칼스텐 성 인근의 프리스트 언덕에서 1929년에 존 에이 윗소 장로가 헌납의 기도를 올렸고 1991년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재확인했다. 성도들은 그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매해 그 곳을 방문하고 있다. 원안: 윌리스 에프 토론토는 32년 간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고로 이들 신혼 부부는 체코 사회에서 영향력있는 인사가 되었다. 이들은 프라하 시 신시가지에 선교 본부로 사용할 빌라를 구했다.

교회의 회원수가 서서히 늘어났다. 대공황에 따른 경제 난국으로, 세계 전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다. 대공황과 편견으로 인한 난관 속에서도 선교부는 조금씩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1933년 2월에는 체코 어로 된 몰몬경이 3,000부 인쇄되었다. 그 중 100부를 체코 전역의 도서관에 기증했다. 체코 사회의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에게도 몰몬경을 선사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침례를 받은 체코인이 128명에 이르렀다.

1933년 5월에 첫번째 체코 지부장단이 조직되었다. 프라하에서 조세프 로하첵이 제1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세계 제2차 대전 발발 전에 브르노와 믈라다 볼레슬라프/코스모노시 등에 지부가 세워져 있었다.

독일에서 삼 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칠년 - 그렇게 십 년 간을 선교사로 봉사한 후, 아더 개스는 그 직에서 해임되었다. 1936년에 후임으로 윌러스 토론토가 체코 선교부장이 되었다. 그는 그 직에서 32년 간 봉사하였다. 교회 역사상 어느 선교 부장보다도 긴 기간을 봉사한 것이다. 1937년 7월에 당시 81세이던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방문을 계기로 그의 노력은 큰 힘을 얻었다. 지역 언론에서는 예언자의 방문과 관련하여 40여 개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로써 교회가 이 나라 전역에 보다 잘 알려지게 되었다.

교회는 평화의 시기가 이어지는 동안 체코슬로바키아에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1933년 초기에 변화의 기운이 일어났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오늘은 소책자를 전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다. 아무도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어제 독일의 수상으로 선출된 히틀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들은 그 정세가 체코슬로바키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침례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마침내, 대관장단은 선교사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그들을 스위스로 철수시켰다. 체코 정부는 공개적인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고, 선교부는 1938년 9월에 폐쇄되었다.

1938년 9월에 조인된 뮌헨 협정에 따라, 전쟁 위험이 일시적으로 경감되었으나, 그 대가로 수데텐란드를 독일에게 이양해 주어야 했다. 10월에 토론토 부장은 아사엘 몰튼 장로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로 되돌아 와서, 지역 지도자들에게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부를 맡도록 임무를 부여했다.(브르노 야로슬라브 코툴란과 프라하의 조세프 로우비첵) 1939년 2월까지 선교부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신앙개조*를 번역·간행하였다.

1939년 3월에는 독일군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다. 정상적인 선교 활동이 다시 한번 중단되었다. 프라하 지부에서 5월에 어머니 날을 기념하기 위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 독일군 장교가 그 방에 들어 섰다. 회중들이 모두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며 그 자리에 얼어 붙었다. 그런데, 그 장교는 자신이 교회 회원임을 밝히며, 함께 예배를 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이 아닌, 같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다.

1939년 7월에, 게쉬타포(독일 비밀 경찰)에 의해 선교사 네 명이 체포되었다. 토론토 부장이 그들의 석방을 위해 협상을 하기까지 40여 일 간 그들은 빵과 물로 연명했다. 8월 24일에 교회 본부는, 남아 있던 얼마 되지 않는 선교사들에게 철수하도록 지시했다. 토론토 부장은 그의 가족을 먼저 보내고, 뒤에 남아서 며칠간 선교사들의 철수 일정을 조정하고 또한 다른 선교부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는 21세의 조세프 로우비첵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대행으로 관리하도록 성임하였다. 당시 십이사도로서 덴마크에 머물고 있던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토론토 자매에게 남편과 선교사들이 무사히 철수할 때까지는 전쟁이 결코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토론토 부장은 전쟁이 전 유럽을 뒤덮기 직전에 체코를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선교부장 대행이던 조세프 로우비

책은 체코 내에 아직도 86명의 회원들이 남아 있음을 알아냈다. 그는 생필품의 결핍이며, 파괴며, 공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회원들의 신앙과 용기를 지속시켜 주었다. "이 처절한 전쟁의 최악의 상태에서도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그들의 간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는 적고 있다.

1946년 3월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했다. 그는 체코 국민들이 활기차게 국가 재건에 힘쓰는 것과 교회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생동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전쟁 기간 동안 10건의 침례가 이루어졌다. 벤슨 장로는 체코 행정 당국에 선교부의 재개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안, 교회의 평판이 아주 좋으며 인기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46년 6월 28일에, 선교부장에서 해임되지 않았던 윌러스 토론토 부장을 포함한 세 명의 선교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재입국했다. 회원들은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들과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 회원들은 그들 국가의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역경을 견뎌 왔다. 그 한 예로, 1932년에 침례받은 유대인 개종자, 엘프리에다(프리에다) 글라스네로바 바넥코바는 2년 간을 강제 수용소에서 보내야 했다.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구속에서 벗어나던 바로 그날, 그녀는 원래 가스실로 보내질 운명에 있었다. 토론토 부장이 병원에서 요양 중인 그녀를 방문하자,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11명이나 되는 그녀의 가까운 친인척들 모두 목숨을 잃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과 신앙이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후에 그녀의 두 아들이 침례를 받았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삼 년 간, 149명의 체코인들이 교회에 가입했다. 불행히도, 자유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48년 2월, 공산 혁명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

맨왼쪽: 페트르 카산과 그의 가족.
왼쪽: 체코 공화국의 선교부 및 지방부 지도자들—라도반 카넥, 조세프 포들리프니, 가드 보쿠브카
아래: 번역가인 카린 헤르만스카, 선교사 에디트 글라우저, 신경 외과의인 앨리스 노바코바

었다. 비밀 경찰들이 선교사들을 감시했다. 경찰 당국은 선교 잡지인 *노비 흘라스*의 간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교회 예배는 잦은 검열을 당했다. 회원들은 모임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직업을 잃거나 식량의 할당량이 줄어 들거나 하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1949년에 공산 정부가 선교사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례는 1948년의 28명에서 1949년에는 7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새로운 개종자 중에는 지리 스네데르플레르도 있었다.

1950년 1월 말경에, 두 명의 선교사가 실종되었다. 그 후 열하루가 지날 때까지 그들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제한된 접경 구역에 들어 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간첩 활동의 혐의를 받았다. 공산당 관리들은 모든 선교사들을 철수시킨다는 조건으로 두 선교사들을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 체코 정부는 1950년 4월 법령을 공포하여 선교부를 폐쇄시켰다.

그 후 14년 간, 체코 회원들은 공개적으로 예배보거나 체코 국경을 넘어 교회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신앙을 조용히 지켰다. 토론토 부장은 유타의 그의 집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가능한 한, 그는 서신 교환과 재정 지원과 의복과 의약품과 교회 잡지를 보내 주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9차례나 체코 입국사증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 후 1964년이 되어서야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가 그 나라에 들어 갔다. 스위스 선교부의 존 러손 부장과 초기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봉사했던 린 프티가 프라하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의 도착 소식이 알려지자, 몇몇 회원들이 축하 간증 모임을 갖기 위해 한 회원 집에 모두 모였다.

그 동안,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월러스 토론토에게 다시 한번 입국사증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회원들이 지하 활동을 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부장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토론토 부부는 일주일 내에 입국사증을 받았다. 그들은 브르노와 프라하에 있는 회원들을 방문했다.

1965년 7월에 토론토 부장은 교회를 재건할 목적으로 프라하로 되돌아 왔다. 그는 많은 정부 관리들로부터 호의적인 대접을 받았지만, 비밀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여 국외로 추방했다. 그 후 새로운 자유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선교부의 성장이 25년 간 억압되었다.

1968년 토론토 부장이 별세하자, 체코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윌리엄 사우스와 그의 부인인 제인 브로딜 사우스에게 체코 회원들이 신앙을 유지하도록 도우라는 부름이 주어졌다. 그들은 해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했다. 1977년 사우스 부장의 건강이 악화되자, 역시 체코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캘빈 맥콤버와 그의 부인 프란세스 브로딜 맥콤버에게 이 책임이 부과되었다. 맥콤버 부장은 1980년에 세상을 뜰 때까지 이 직책을 수행했다.

1972년에 독일 드레스텐 선교부의 헨리 부크하트 부장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모든 회원들과 다시 접촉하여 모임을 다시 갖도록 지리 스네데르플레르를 임명했다. 1984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선교부 에드윈 모렐 부장은 체코어 몰몬경을 재인쇄하여 초판을 갖고 체코로 들어 갔다. 오타카르 보즈쿠브카는 브르노에서 은밀히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 왔다. 올가 코바로바 캄포라는 1982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녀는 회원 선교 사업을 통해 8년 간 47명을 침례로 이끌었다.

1985년에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이 헌납된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침례가 한 해에 20명 선으로 급증했다. 동유럽에서의 이 첫번째 성전은 공산주의에 의해 지배되던 세계에 복음이 출현했음을 상징하는 표상이 되었다.

198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러셀 엠 넬슨 장로가 동유럽에서 선교 사업을 관리하도록 지명되었다. 그는 해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하여 교회를 법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때마다, 그는 아직도 그 요청에 대한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례적인 응답만을 들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 또한 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했다.

1989년 5월, 체코슬로바키아는 여전히 공산국가였다. 그런데, 11월에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이 공산주의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다. 1990년 1월에, 모든 신앙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나라 전역에 선포되었다. 2월에, 교회의 승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가 전달되었다. 1990년 2월 6일에, 넬슨 장로는 칼스테른 성의 인근에 있는 언덕에 올라 헌납 기도를 새로이 드렸다. 윗소 장로가 60년 전에 드렸던 헌납의 기도를 다시 새롭게 확인한 것이다.

선교사들이 40년 간의 공백을 깨고서 1990년 5월에 다시

사진 촬영: 마빈 케이 가드너, 크레이그 다이먼드, 올가 카바로바 캄포라

위: 프라이베르크 성전에서의 체코 성도들

왼쪽: 1991년 6월의 프라하 스메타나 홀에서의 태버내클 합창단 공연; 개종자와 선교사, 1990년

아래: 올가 카바로바 캄포라, 몰몬경, 체코판 *리아호나* (1993년 6월호) 창간호

들어 갔다. 교회는 1990년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선교부를 다시 세웠다. (지금은 체코 공화국 프라하 선교부) 1991년 6월에 유서 깊은 프라하 오페라 하우스에서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이 공연을 가졌다. 그 공연은 전국으로 실황 중계되었다.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던 교회가 체코 전역에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1993년 6월에 체코판 교회 공식 잡지인 *리아호나*의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이제, 체코 공화국 프라하 선교부의 교회 회원은 1,700여 명에 이른다. 체코 공화국의 개종자 대부분이 18세에서 30세 가량의 청년들이다. 그들 모두가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새 신앙으로 활기에 차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했거나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수십 년 간 신앙으로 인한 고립과 적대를 견뎌온 나이든 세대도 있다. 그들은 다같이 함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신앙의 깃발이다. □

지리와 올가 스

불굴의 개척자 부부 집중 탐방기

마빈 케이 가드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체코인 지리 스네데르플레르는 40여 년 이상을 감시와 취조와 탄압을 받아 왔다. 그는 공산당 지도자들을 자주 찾아가, 교회의 공식 승인을 요청했다. — 그러나, 그에게 되돌아 온 것은 모욕이었고, 그의 요청은 일언지하에 거부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 올가는 십대 때 침례 받은 이후 언제나 충실히 간증을 지켜 왔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전체주의 체제가 출현한 후 선교사들과 교회가 축출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40여 년 이상을 자신들의 태어난 조국의 전역을 누비면서 교회 회원들을 은밀히 돌보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종교에 적대적인 환경속에서 신앙의 불꽃을 잃지 않도록 독려해 왔다.

1988년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가 노력을 재개한다면 교회의 공식 승인에 관한 정부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하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가족의 안전이나 직장이나 자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는 아내를 꼭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은 뭐라도 해야 하오. 이는 주님을 위한 일이요. 이 사업이 우리의 자유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오."

스네데르플레르 형제가 승인 청원서를 제출하자, 그를 비롯한 여러 교회 회원들이 오랫동안 견뎌왔던 의심과 탄압이 더 한층 혹독해졌다. 하지만, "성도들은 신앙과 용기로 정진했습니다." 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말한다. 그는 칠십인 정원회의 한스 비 링거 장로를 대동하여 여러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식 승인을 해 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했다. 넬슨 장로는 계속 말을 이어 나갔

네데르플레르

복음을 위한 지리와 올가 스네데르플레르의 희생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교회 회원들이 40여 년 간의 공산 치하에서 치뤄온 수많은 희생을 나타낸다. 맨왼쪽: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의 성전장과 메이트론으로 봉사할 당시의 스네데르플레르 부부.

16~17쪽 사진 촬영: 마빈 케이 가드너; 18-24쪽의 사진은 지리와 올가가 스네데르플레르가 제공한 것임

다. "정기적인 금식과 기도, 모든 요건에 철저히 순응함을 통하여, 결국 그 영광스런 승인 발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토록 많던 취조와 위험을 무릅쓰고 잘 견뎌온 스네데르플레르 부부를 비롯한 이 충실한 회원들을 보면서제가 얼마나 탄복하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벗*, 1992년 5월, 14~15쪽)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영웅주의적인 어떠한 생각도 사양했다. "제가 영웅이라고 소개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저는 전혀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상존하는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온 우리 교회 회원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더 이상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 버렸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산다면, 그 위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 회원들이 했을 일을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위: 1965년 스네데르플레르 가족의 단란한 모습—지리, 딸 다니엘라, 아들 페트르, 올가
아래: 1965년 교회 모임이 끝나고 윌러스 에프 토론토 선교부장(맨 오른쪽에 서있음)과 그의 아내 마사(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함께 플젠의 회원 가정에서

"더 알고 싶은 열망이 곧 생겼습니다."

지리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1932년 4월 24일에 체코슬로바키아 서부 보헤미아 지역의 플젠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에 엄격한 종교적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는 열네 살 때 교구 목사로부터 종교 집중 학습반의 수료 증서를 받았다.

1948년 9월에, 당시 16세였던 지리에게 두 친구가 몰몬 선교사들이 전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다음 모임에 지리는 친구들과 함께 갔다. "선교사들은 젊고, 친절했으며, 매우 낙천적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열망이 곧 생겼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서 들었던 가르침에서 확신을 얻어, 저는 그 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17세 생일날이던 1949년 4월 24일 일요일에 지리와 그의 두 친구들은 네 명의 선교사 및 두 명의 지역 회원들과 함께 전차를 타고 로초틴선의 종착역에서 내려 그 곳에서 다시 45분간 걸어 카멘니키 연못으로 갔다.

"영하 5~6도는 되었을거에요." 하고 그때 일을 회상한다. "풀과 나무들

이 온통 서리로 덮여 있었지요.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인 연못으로 용감하게 나아가 주님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고, 물가에서 확인을 받았다. "그 순간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플젠에 있던 지부에는 회원이 단 7명 밖에 없었다. 그 해 말 경에 지리는 집사로 성임되었다. 그리고 곧 제사로 성임되었다. 그 이듬해에 공산당 정부가 교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교부를 폐쇄하자, 18세된 지리와 여러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부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지리는 20세에 지부장단 보좌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나 회원들의 아파트에서 가능한 한 많이 모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비밀 경찰들이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지리는 22세가 되던 해에 올가 코자코바와 결혼했다. 지리처럼, 올가도 십대였을 때, 선교사들이 전도하던 것을 듣고 온 학교 친구들로부터 교회를 알게 되었다. "그 가르침을 친구들과 같이 듣던 중에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라며 그 당시를 회상한다. 그녀는 지리가 플젠에서 침례 받은 지 6개월 후에 프라하에서 침례를 받았다.

여러 지부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모이는 소풍에서 지리와 올가는 서로 만났다. 매년 7월 24일에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존 에이 윗소 장로가 1929년 4월 24일에 드린 헌납 기도를 기념하여 칼스테른 성채의 인근에 있는 프리스트 언덕으로 모인다. 청소년들은 때로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를 갖기도 하고 함께 경전을 공부하기도 한다. 지리와 올가는 1954년 4월 24일에 결혼했다. 지리가 22번째 생일을 맞는 해였고, 침례 받은 지 5년이 되는 해였다.

그 후 얼마 안있어, 지리는 군복무를 위해 징집되었다. 그의 종교 성향으로 인해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혀, 군인이기보다는 공병대에서 2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 보냈다. 주님께 돌이켜 힘을 간구하며 인내하여 "건강과 신앙이 자라나" 사회로 되돌아 왔다.

고향인 플젠으로 되돌아와, 당시 24세인 지리와 보후밀 콜라 지부장은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시작했다. 지리는 33살되던 1965년에 장로로 성임되었다.

교회 회원들에 대한 탄압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비밀 경찰들이 번번히 그들을 취조했다. "한번은 6시간이나 취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지리가 말한다. "그들은 온갖 위협 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며 교회 활동을 못하도록 좌절시키려 했지요. 대부분의 회원들은 그러한 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지리와 올가는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둔 부모이다. 딸은 다니엘라이고 아들은 페트르이다. 두 자녀 모두 교회에서 유아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공산주의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금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부모들과 같이 스네데르플레르 부부는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조차 자신들이 교회 회원임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부분는 여러 덕행의 모범을 보이며 사랑과 주님의 영이 가정에 넘쳐나게 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라고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과 가정의 밤을 함께 가졌고, 일요일마다 가족 주일학교를 가졌습니다. 딸과 아들 모두가 이 공과에 같이 참여하여 경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자기 친구들의 부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하고 스네데르플레르 자매는 말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다른 교회 회원들과의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어요."

딸이 12살, 그리고 아들이 8살이 되었을 때, 지리와 올가는 자녀들에게 교회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딸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고 스

네데르플레르 자매가 말한다. 딸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떠한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결혼하여 한 자녀를 두고 있다. "제 딸아이는 딸 아이대로 자유의지가 있지요."라고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말한다. "아마도 어느 날 그 아이도 진리를 인식할 것입니다."

아들 페트르는 부모들이 가르친 바를 믿어 13세 때 침례를 받았다. 후에 그는 교회 회원인 제로미라 헤두코바와 결혼했다. 그들은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더이상 공식 승인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역경의 시기에, 지리와 올가는 여러 차례 종교적 탄압을 이유로 조국을 떠나는 것을 법적으로 인가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 더욱 거센 탄압과 새로운 취조를 받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사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리는 농업 및 관개 연구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이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그의 상사들을 소환하여 지리에게 경제적인 징계를 가하라는 명령을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라고 지리는 말한다. "저희 부부는 상사분들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968년에 그들은 더 이상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국에 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하고 지리가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1972년에, 지리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로 부름을 받고, 가능한 한 많은 교회 활동을 재개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1974년, 지방부가 조직되고 지리는 지방부장으로 성별되었다. 수 년 동안, 지리와 올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여름 휴가 동안 전국의 회원들을 찾아 방문하는 가운데 그들을 강화시켰다. 그들은 때로 단 한 사람밖에 찾지 못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가정에 5~6명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체코슬로바키아 국외에서 교회 역원들이 입국 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지리는 그들과 동반하여 전국을 누볐다.

방문을 하는 틈틈이 그는 서신 왕래를 "주도 면밀하게 실행해 나갔다."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저의 모든 국내외 편지를 검열하는 비밀 경찰들이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도록 세밀한 정보 체계를 고안해 내었지요. 우리의 편지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공식 승인을 받으려는 지리의 부단한 노력은 언제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공식 승인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신앙을 드러내 놓고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회원들을 준비할 시기가 드디어 온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그 당시의 여러 해 동안을 비록 은밀하지만 바쁘게 보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시간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말한다. 어떠한 물자도 공식적으로 교회 본부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들여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할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출판 자료들을 함께 나누고자 은밀하고도 쉼없이 노력했다. 그들은 교회 찬송가, 지침서, 교재 등을 번역했고, 교리와 성약 및 경전 주석을 완역하여 검토를 보았으며, 지방부 대회에서 주어진 말씀들을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한 번에 복사지 9장을 끼우는 구형 타자기로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타자로 찍어 나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본들을 받은 회원들은 또다시 그런 방법으로 타자를 쳐서, 손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자료들이 전파되어 갔다.

회원들은 언제나 교회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국에서 우리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지요. 그것들을 숨겨 놓을 곳이 많았거든요."라고 지리는 말한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쓴 가치가 있었다. "회원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지식을 연구하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김없이 드러내어 놓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위: 수십 년 간 체코슬로바키아 성도들은 존 에이 윗소 장로가 1929년 4월 24일에 드린 헌납 기도를 기념하여 칼스테른 성채의 인근에 있는 프리스트 언덕으로 매년 함께 모인다. 이 사진은 1980년 7월 24일에 찍은 것이다. 아래: 체코슬로바키아 지방부장단, 1985~1990년 (왼쪽으로부터) 제2보좌 자로미르 홀크만, 지리 스네데르플레르 부장, 제1보좌 란도반 카

"우리는 외톨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체코슬로바키아 성도들은 교회 본부나 다른 나라의 성도들과 어떤 접촉도 할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간에도 접촉이 거의 없었다.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외톨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저는 언제나 우리가 전세계 교회 회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족의 일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회원들은 얼마동안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동독(구 독일 민주 공화국)으로 갔었다. 양국이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겐 그 두 나라 사이의 왕래가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캘빈 맥콤버 형제가 1979년에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스네데르플레르 형제에게 그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성도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도록 임명 받았다는 가슴 벅찬 소식을 전해 주었다.

"저는 그 해에 이 가능성에 대해 숙고해 오고 있었습니다."라고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말한다. "비밀 경찰들이 눈치 못채게 하고 맥콤버 형제에게 이러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할지를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와 의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자신이 우리들의 축복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의로운 생각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성신에 의해 전달됩니다.—글로 쓰거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1975년 당시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었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 회원들을 축복하는 임무를 위임 받고 프라하를 방문했다. "성전에 가고 싶다는 우리의 소망과 함께 아마도 평생토록 성전에 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넬슨 장로님 부부께 피력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넬슨 장로님은 '자매님, 언젠가 자매님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와서 성전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불가능하게만 들렸지만, 저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라고 스네데르플레르 자매는 말한다. 그 약속은 4년 후에 이루어졌다.

1979년 봄에, 지리와 올가는 대관장단으로부터 그 해 가을 솔트레이크에서 열리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 성전 의식을 받으라는 초대장을 받았다. 수년간 가장 가까운 성전이 있는 스위스로 가기 위한 비자 신청이 언제나 거부되어 왔기에, 그들은 유타로 여행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에 빠졌다.

어느 날, 지리는 이 상황에 관해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했다. 동료 한 사람이 구비 서류를 그 다음날 가져 올테니, 작성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리와 올가는 미국 여행 허가를 받았다. 또한 입국 사증과 함께 비행

기표를 얻었다. 그들은 1979년 10월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연차 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가를 받는 길을 알고 있던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비자 발급 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관장단이 초대하시면, 지상의 그 어떠한 힘도 그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지리는 말한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라고 스네데르플레르 자매는 말한다.

성전에서 스네데르플레르 부부는 영속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하심'을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다 잘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봉사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5년 6월에 프라이베르크 독일 성전의 헌납을 앞두고, 지역 회장단은 지리와 올가를 초대했다. 한 헌납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스네데르플레르 형제에게 즉석에서 말씀할 것을 요청했다. 지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제의를 받아 들였다. 그는 체코어로 말했고, 이어 그의 말은 영어와 독일어로 통역되었다. "프라이베르크 성전은 농녹 형제 자매들의 위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건립되었다는 것과 동유럽의 많은 회원들을 맞아 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라이베르크 성전과 성전 참여자들의 기도가 철의 장막의 몰락을 가져오며 그리하여 동유럽의 열국에서 성도들이 올 수 있게 되리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로 그 성전에서 성전장과 메이트론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집으로 바로 그 동구권 성도들을 받아 들이게 되리라는 것을 또한 전혀 알지 못했다!

1985년 10월 28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프라하에 있는 스네데르플레르 형제의 아파트에서 회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가졌다. 스네데르플레르 자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저희 아파트 방바닥이 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었습니다.

"몬슨 장로님은 프라하는 물론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에서 성도들이 집합하는 곳으로 저희 아파트 방과 건물 전체를 헌납하셨습니다.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넓히는 일에 새롭게 힘을 내고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일깨운 경이로운 영적 경험이었지요."라고 스네데르플레르 장로는 말한다. 그 당시, 몬슨 장로는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를 대제사로 성임하였다. "저는 성신의 임재하심을 느꼈으며, 마음의 즐거움을 띄고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라는 계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인해 수감될 수도 있었지요."

그 후 수년 동안, 지리는 교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내려는 노력을 재개했다. 그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의 모든 활동 회원들은 신앙을 행사했으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2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 성도들은 한 달에 두 차례의 금식 주일을 가졌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첫번째 일요일에 금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도 금식을 했다.

1987년에 공산당 정부의 종교 문제 비서관을 방문한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교회 공식 지도자는—정부와 교회 간의 공식 연락 담당자—체코인이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넬슨 장로와 한스 비 링거 장로는 지리 스네데르플레르를 그 공식 연락 담당자로 임명했다.

지리가 그 임무를 흔쾌히 받아 들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미 그는 수년 동안 셀 수 없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해 왔으며 정부는 그를 분쟁 야기자이자 국가의 공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비서관 자신의 통보로 인해, 공산 정부에 교회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넬슨 장로와 링거 장로를 대동하는 동안, 지리는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1988년 12월의 어느 모임에 혼자 오도록 초청되었는데, "비서관실의 직원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냈다."고 지리는 말한다. "그들은 저를 윽박지르며 공식 승인을 요청하는 교회의 청원서를 철회하라고 했지요. 심지어 그들은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신청하면 교회 회원들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네데르플레르 부부는 체코슬로바키아 성도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총관리 역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형성했다. *왼쪽:*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부부와 함께, 1991년; *오른쪽 위:* 여러 해 동안 교회의 체코 본부로 이용되어온 스네데르플레르 부부의 집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함께, 1985년 10월 18일; *오른쪽 아래:* 러셀 엠 넬슨 장로 부부와 함께, 1988년

두고 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담대히 입을 열어 지난 40년 간 교회가 받아 온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표명하였다. "그 순간 더 참지 못하고 우리를 제거할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지요. 공식 승인을 내어 주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제거하거나 가두거나 추방하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인해 그 즉시 수감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은 아마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 정부가 종교 성향을 띤 시민들을 어떤 식으로 불법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지를 교회가 세상에 알릴까봐 두려워 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제 자신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지리는 자신이 국가에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비밀 경찰들의 요시찰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 40여 년을 공산치하에 살아오며 그러한 일에 이골이 났지요." 그가 비록 비밀 경찰에 의해 매달 심문을 받았지만, 그는 또한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 비서관과 매달 만났다. 그는 빈번히 만나는 그 기회를 통해 "우리의 대의를 결코 철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였어요." 1989년 5월 17일에, 그는 승인 요청을 새로이 재출했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매주 비서관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40여 년 간의 긴 투쟁 후"

그러던 중, 1989년 11월 17일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 정부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무혈 혁명"이 시작되는 특기할 만한 날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더 한층 박차를 가해 교회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요. 종교 비서관은 문화장관에게 문의하라고 했고, 그는 국무성으로, 국무성에서는 정부 각료들의 결정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비밀 경찰이 없어졌어요. 종교 담당 비서실이 해체되었고, 공산당 정부가 몰락했지요."

1990년 1월에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교회 및 종교 단체들의 등록을 담당하는 새 행정부의 문화 장관에게 교회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문화 장관은 지리가 들려 주는 이야기와 그가 보여 준 문서들을 보고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었다고 지리는 이야기한다. "그는 즉각적으로 정부에 교회 공식 승인 및 공식 활동의 인가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해 줄 것을 추천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는 공산 정권이 '교회의 활동을 부당하고 범법적인 방법으로' 폐지함으로서 교회의 권익을 침해한 데 대해 새로운 정부가 이에 대한 수정을 가해 줄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적었지요."

1990년 2월 6일에, 러셀 엠 넬슨 장로와 한스 비 링거 장로 및 스네데르플레

르 형제는 새 정부의 부수상을 만났다. 그날 오후, 그들은 칼스테른 성의 인근에 있는 프리스트 언덕을 윗소 장로의 발자취를 좇아 올라갔으며 넬슨 장로가 체코슬로바키아를 회복된 복음을 선포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헌납했다.

1990년 2월 21일에, 새 정부는 교회의 요청을 1990년 3월 1일부로 승인한다는 심의 결의를 통과시켰다. 그 소식이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되었다. "마침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교회의 공식 설립 및 공개 활동을 인가 받기 위한 길고 긴 40년간의 투쟁이 막을 내렸습니다."라고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말한다.

그 해 후반기에,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특별 모임을 가졌다. "우리 모든 개개인을 위한 영적인 향연이었습니다. 그 후 그 곳에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신의 영이 강하게 임재했음을 간증하였지요. 어떤 순간들은 우리의 여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또 다른 잊지 못할 순간을 회상한다. 1991년 5월 20일에,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한 사람은 그 당시 대관장단 제2보좌였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었다.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님, 형제님은 프라이베르크 성전의 성전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올 9월 1일부터 이 임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저는 처음엔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은 '듣고 계십니까,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님?'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몬슨 부대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름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성전에서 스네데르플레르 부부는 전혀 복음을 들어 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세대들을 위하여 옥문을 열었다. 그들은 또한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에 영적인 암흑에서 번민했던 의식 참여자들을 위해 성전문을 열었다. 그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동독 등 구 공산 국가들의 교회 회원들을 맞아들였다.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라고 스네데르플레르 자매는 짧게 말한다. 4년 간 충실하게 봉사한 뒤, 스네데르플레르 형제 부부는 프라하의 집으로 돌아와 보다 많은 조상들이 성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 역사 연구를 계속했다.

"교회 회원 모두가 영웅이에요."

여러 선교사, 선교부장, 지역 성도, 현재와 과거의 총관리 역원 등의 이름을 들면서,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사업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기여하신 모든 분들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라고 스네데르플레르 형제는 말한다.

그는 지나간 사건들과 이름들과 얼굴들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을 영웅이라고 하는 말에 머리를 가로 젓는다. "오히려, 저는 보다 많은 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영웅이라면, 교회 회원 모두가 영웅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더욱 늘어나는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영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묶으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이 기사의 내용은 작가가 스네데르플레르 부부와 인터뷰한 내용 및 지리 스네데르플레르의 출간되지 않은 개인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

프라하의 집에서 1985년

예언의 은사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믿는다."
(신앙개조 1:7)

복음의 회복과 함께 예언의 은사가 다시 한번 가능하게 되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사"(*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1974년], 155쪽)라고 설명하셨다. 이 은사로, 살아 계신 예언자는 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주의 뜻이 되리라."

여러 시대를 통하여 예언자들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도록 종종 영감을 받아 왔다. 예언자들의 대부분의 일은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구세주의 증인으로 행동하며, 죄에 대해 경고하고 영의 권세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예언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언자로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영감 받은 의의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봉사의 일"(에베소서 4:12)을 하기 위해 예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주님께서는 또한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4)라고 밝히셨다. 교회의 대관장은 주님의 예언자이며 선견자요, 세상의 계시자이다. 그의 성역을 돕는 사람들로 사도들이 있으며 이들 또한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들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우리는 모세로부터 예언의 은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배운다. 모세는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민수기 11:29) 하고 외쳤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요한계시록 19:10)이다. 이 놀라운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것임을 알게 해주는 은사이다. 성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능 내에서"(*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어다*, 155쪽) 계시 받을 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한 영감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자매를 돕기 위해 영의 속삭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일상의 생활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매는 예상치 못했던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감독의 요청을 받고 당황했다. 24세인 그 자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대학교에서 대학원 장학금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엔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고, 공부를 더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택을 위해 고심하던 중, 그녀는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신의 봉사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스테이크 부장님의 조언도 들어 보기로 했다. 그와의 접견으로 그녀가 망설이던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혹 다른 대답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응답은 자신만의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표시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죽는다면 구세주를 대면하여 그분의 확실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느낌으로 저는 거의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원하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받은 축복, 즉 평화와 확신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 *예언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

사진 촬영: 웰든 앤더슨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충실한 청소년

"청남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저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여러분의 뿌리를 두십시오.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온 청년 지체하랴?… 아!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 (*찬송가*, 141장) 저는 여러분이 계속 정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정결은 곧 행복의 길입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범법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시온의 청소년으로서 강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준비를 갖추고 진실하며 순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혼할 시기에 이르면 그 시기의 교회 회원을 위한 지침을 읽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결혼한다면, 여러분은 동반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믿음, 같은 표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1]

교회의 목적

"우리가 이야기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도와 그분의 아들과 딸들의 불멸과 영생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2]

우리 사업의 목적

"우리의 모든 사업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불사불멸과 영생으로 인도되는 길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전능하신 이의 계획에 들어 있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 관한 확실하고 확고한 확신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성한 생득권의 참여자이고 우리 마음속의 신성을 가지고 온 영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행되는 일들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 점을 확인하고 승인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얘기하고 행할 때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들의 입장과 거룩한 상속과 거룩하고도 영원한 운명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켜 주는 일입니다."[3]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함

"가족 선언문은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리들을 우리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는 한 가족 선언문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교훈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몰몬경은 그 교리대로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값진 진주와 그 속에 포함된 신앙개조도, 이 선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4]

신권의 열쇠

"오늘 오후에 우리는 토르발드슨의 그리스도 조각상 원작이 있는 사도의 교회에 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배당의 한 쪽에는 손에 열쇠를 든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의 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책임자들이 그 열쇠의 의미를 이해하리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열쇠들이 진짜의 실물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19) 이 열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엘리야 및

일라이어스의 손에 의해 회복된 신권의 열쇠들입니다. 이는 또한 주님이 교리와 성약 124편의 말씀에서 사용한 충만한 신권의 열쇠이며 주님의 집에서 행사되는 열쇠들입니다."[5]

첫번째 시현

"이곳[북 뉴욕 주]은 첫번째 시현이 있었던 곳입니다. 첫번째 시현은 우리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우리의 모든 주장과 이 사업의 참됨에 관하여 우리가 전하는 모든 진리들이 소년 예언자의 첫번째 시현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은사와 앞서 있었던 모든 경륜의 시대의 축복들을, 말하자면 크게 하나로 요약하여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던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대업의 중심이 됩니다."[6]

몰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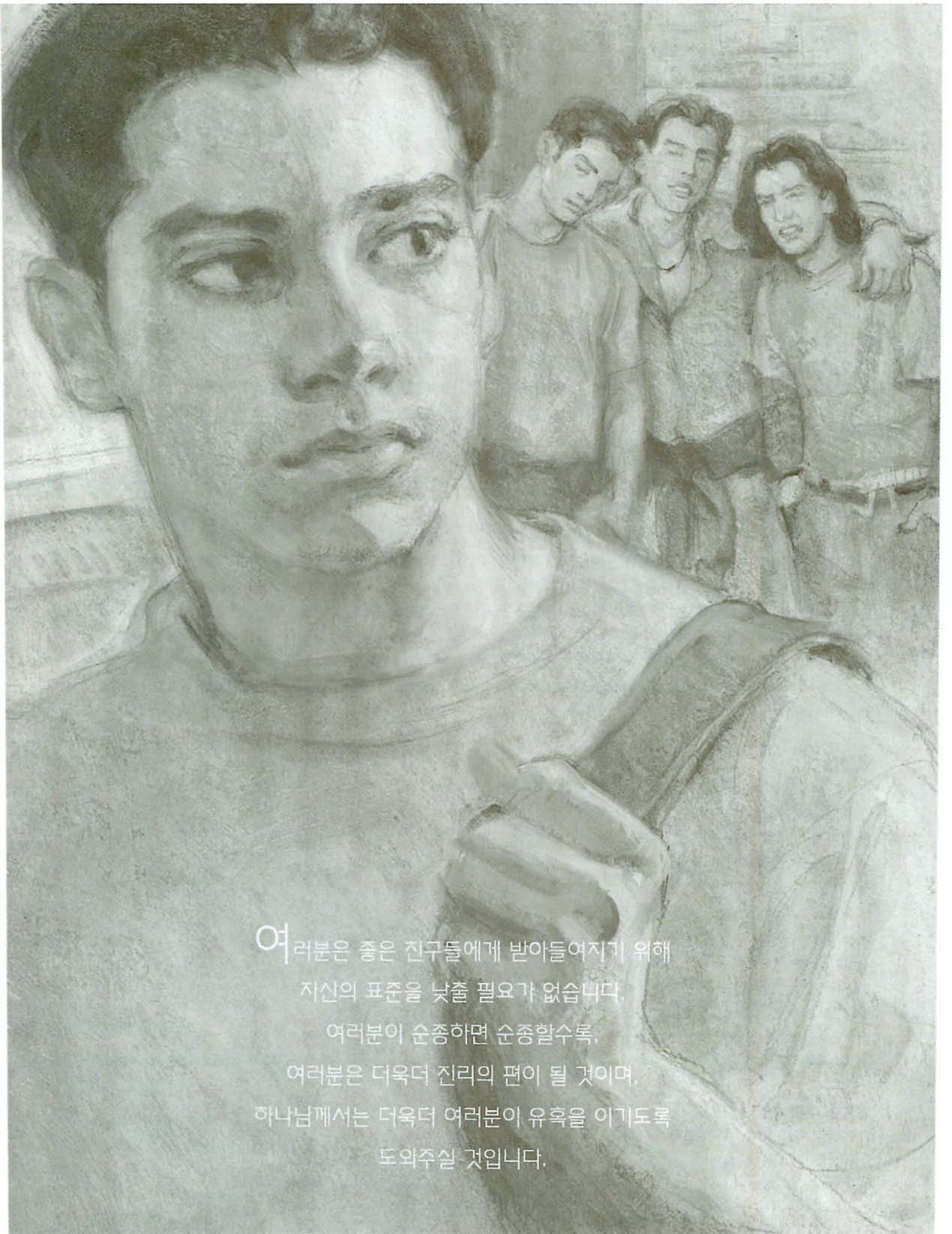
"누가 몰몬경의 참됨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은 읽혀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이 참되다는 증거는 그 책을 읽는 것, 즉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읽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모로나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백 만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얻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선 이 책을 들고 펼쳐서 그 속의 낱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의 다른 기원들을 찾아 보려는 수십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모두들 실패했지만, 몰몬경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7]

교회를 위한 희생

"저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바친 것에 관해, 이 대업을 위해 생명을 잃고 미시시피와 솔트레이크 계곡 사이에서 죽어 매장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는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날조된 이야기를 위해 그러한 희생을 치르지는 않습니다."[8] □

주

1. 1996년 6월 13일, 네델란드 헤이그, 노변의 모임.
2. 1996년 6월 15일, 독일 베를린 지역 대회.
3. 1996년 6월 15일, 독일 베를린 지역 대회.
4. 1996년 6월 14일, 덴마크 코펜하겐, 노변의 모임.
5. 1996년 6월 14일, 덴마크 코펜하겐, 선교사 모임.
6. 1996년 7월 12일, 뉴욕 주 로체스터, 선교사 모임.
7. 1996년 7월 12일, 뉴욕 주 로체스터, 선교사 모임.
8. 1996년 7월 12일, 뉴욕 주 로체스터, 선교사 모임.



여러분은 좋은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표준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진리의 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이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대한 질문, 신중한 대답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나이가 차면 선교사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곧 선교사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현재 여러분이 결정한 다른 선택으로 인하여, 이러한 가치있는 목표를 완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접견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말을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바로 여러분이 의로운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매우 가치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동년배들의 부정적인 심한 압력과 세상의 나쁜 영향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 저는 학교에서 다른 소년들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 올바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나쁜지, 왜 나쁜지를 정말로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제게 아무 것도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세계 각지에서 만났던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질문했던 인비 사항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경전과 예언자들로부터 배웠던 것으로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표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신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한 것들이 참됨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접견을 귀기울여 듣고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임을 압니다.

질문: 우리에게 동년배들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자랑합니까? 제가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제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를 바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답변: 여러분은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탄으로부터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의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함께 가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이 같이 할 때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거나, 그룹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소속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한 패에 속함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잃으며, 어떤 사람들은 생명도 잃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진실로 여러분은 이미 강하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표준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진리의 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이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1] 여러분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여러분의 표

준대로 생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표준에 대해 알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대답해 주되, 설교는 피하십시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인정 받기 위해 자기의 표준을 타협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도자가 되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선택하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올바르지 않은 동료들의 압력을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그런 생각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어떤 나쁜 생각들은 저절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거나 듣는 것에 의해 오기도 합니다.[2] 음란한 사진에 대해 말하거나 보는 일은 강력한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이 합당치 않은 비디오나 영화를 보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무언가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시오.[3] 마음은 한 번에 오직 하나씩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한 생각들을 밀어내기 위해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십시오.[4] 무엇보다도 나쁜 것을 읽거나 봄으로써 그런 생각들을 쌓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조절하지 않으면, 사탄은 결국 여러분이 나쁜 생각대로 행동할 때까지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5]

질문: 왜 순결의 법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 행복에 관한 위대한 계획의 원리와 구세주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기초는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스러운 결혼 서약을 하며 법적으로 함께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맺어질 때에 시작됩니다. 완전한 시작은 성전에서 두 사람의 인봉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과 더불어 그들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하며,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자녀들을 가정으로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버지는 공급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어머니는 그녀의 부드럽고 상냥하며 돌보아 주는 능력으로 가정의 심장 같은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 순종, 사랑, 봉사 그리고 지식 탐구와 같은 원리들을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서서히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영원한 결혼 성약 내에서, 주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그분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 그들의 모든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통하여 신성한 출산의 능력을 표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6] 이러한 개인적이고, 신성하며, 친밀한 경험의 하나의 목적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필멸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영들에게 육체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부가 서로 충성하고, 충실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도록 맺어 놓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결혼 성약 밖에서의 그러한 애정 행위들은 주님의 목적을 해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를 금하셨습니다.[7] 신성한 결혼 성약 내에서의 그러한 관계만이 주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심각한 정신적, 영적인 해를 끼칩니다. 결혼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지금은 그 해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정신을 앙양하고, 깨우치며, 힘을 부여하는 성령의 모든 영향력에 대해 장애가 됩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강력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일으킵니다. 결국 더 심각한 죄를 짓게 하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이기심을 야기하고 잔학 행위, 낙태, 성적 학대, 강력 범죄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극은 동성 연애의 행위로 이끌 수 있는데, 그것들은 악마적인 것이며 절대적으로 나쁜 것입니다.[8]

성범죄는 청남들이 소유한 신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청남 청녀 모두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의 능력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일관적이며 기꺼이 따르는 순종은 여러분의 자신감과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러한 자질들은 여러분이 힘든 도전에 직면할 때 그것들을 이겨 내도록 하는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영감과 힘을 받도록 자격을 줍니다.[9]

질문: 사람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어느 한계까지인지는 결코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 결혼 계약 밖에서의 어떤 성적인 은밀한 행위, 즉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다른 사람의 신성하며 은밀한 육체의 일부에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신체 내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범법입니다.[10]

사탄은 육체적 접촉이 낳는 강하고 자극적인 감정들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접촉이 있다고 믿게 유혹하며, 그래서 그 경계선 내에서만 한다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증인으로서 저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거짓임을 확실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순결하고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영상이 담긴 영화나 비디오나 잡지를 통해 실험해 보도록 유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욕망을 자극시켜 곧 불의의 관계로 인해 순결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험을 하도록 원합니다. 강력한 습관은 깨뜨리기 어렵게 굳어집니다. 결과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여러분이 신중히 결혼을 계획할 만큼 성숙되었을 때, 부모님 앞에서도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십시오.[11] 이러한 신성한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계명들을 따르겠다고 주님과 성약을 맺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유혹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표준을 바꾸지 마십시오. 예외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런 표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질문: 결혼하기 전에 여자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결혼 전에는 여자 친구든, 약혼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적인 접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답은 그것뿐입니다.[12] 그것은 계명인 동시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표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릴 때에는 남녀 둘이서만 데이트하지 말고 여럿이서 그룹으로 다니라고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할 때,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을 높여 주고, 보호하며, 존경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사탄은 육욕적인, 즉 거짓된 사랑을 조장합니다. 그런 것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은 깨끗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질문: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무슨 죄를 감독님께 말씀드려야 합니까?

답변: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성적인 죄들은 감독님 앞에서 진지한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죄를 저질러 온 분이 계시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일은 더 나쁜 일입니다. 죄는 우리 몸속의 암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낫지 않는다면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감독님의 인도 아래 회개를 통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은 바쁘거나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분께 여러분이 곤경에 빠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그 분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젊은이가 이

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그러한 행위들이 나쁘다고 배워 왔습니다. 저는 회개가 훌륭한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잃어버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저의 죄를 회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준비가 된다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13]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범법의 여행을 시작하고 결코 다시는 돌이키려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죄는 더욱 큰 형벌이 따르며, 극복하기에도 더 어렵습니다. 만일 죄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더욱 잘하겠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기를 간구합니다.[14] 여러분은 신성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15]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16] 특별히 몰몬경과 같은 경전들을 공부하면서 의롭게 살겠다는 결심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지도자와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이십시오.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17] 그분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18]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몫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해주실 것입니다.[1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다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

199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의 말씀을 각색한 것임.

주

1. 고린도전서 10:13 참조
2. *엔사인*, 1993년 11월호, 에이치 버크 피터슨, 42~44쪽 참조
3.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1988년), 278, 445~446쪽 참조
4. *엔사인*, 1974년 1월호, 보이드 케이 패커, 27~28쪽 참조
5. *엔사인*, 1990년 11월호, 토마스 에스 몬슨, 47쪽 참조; *엔사인*, 1973년 1월호, 로버트 엘 심슨, 112쪽 참조
6. *엔사인*, 1974년 5월호, 스펜서 더블류 킴볼, 7쪽 참조
7. *엔사인*, 1972년 7월호, 보이드 케이 패커, 111~113쪽 참조
8. *엔사인*, 1980년 11월호, 스펜서 더블류 킴볼, 97~98쪽 참조
9. 교리와 성약 43:9, 15~16 참조
10. *엔사인*, 1974년 11월호, 스펜서 더블류 킴볼, 8쪽 참조; 1977년 11월호, 60쪽 참조; 1980년 11월호, 97쪽 참조
1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283~284쪽 참조
12.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집(1982년), 264~265, 280~281쪽 참조
13.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가르침*, 70~72쪽 참조
14. 교리와 성약 64:33~34 참조
15. 교리와 성약 84:35~39 참조; *용서가 낳는 기적*(1969년), 스펜서 더블류 킴볼, 124~125쪽 참조
16.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494쪽 참조
17. 모로나이서 10:32 참조
18. 교리와 성약 82:10 참조
19. 니파이삼서 18:20 참조

네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성전의 그리스도, 시 해리슨 콘로이사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예수님은 고대에 진리를 알고자 소망했던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이 영원한 진리를 찾는 데 인도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앨마서 37:35~37; 38:9 참조)

템플 스퀘어

1847년에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간지 나흘째 되던 날, 브리감 영 대관장은 솔트레이크 성전 부지를 선택했다. 그 4헥타르의 부지가 솔트레이크시티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심인 템플 스퀘어가 되었다.

오늘날, 템플 스퀘어에는 수백 만의 방문자들이 보고 참여할 거리가 많이 있다. 잘 가꾸어진 꽃밭과 나무와 관목숲은 솔트레이크 성전, 태버내클, 어셈블리 홀, 두 개의 방문자 센터 및 교회와 관련된 여러 기념비 및 조각상 등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방문자들은 템플 스퀘어 주변을 유유히 산책하거나 자매 복음 선교사들에게서 교회의 역사와 신조에 관해 배울 수 있다.

왼쪽: 약 30,000개의 네덜란드 튜울립 구근이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 심겨져 있다. 몽고에서 온 마그사린 베치메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위: 솔트레이크 성전 및 태버내클

이 템플 스퀘어는 서쪽으로 가족 역사 도서관과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을, 동쪽으로 요셉 스미스 기념관, 상호부조회 건물, 교회 행정 건물, 교회 본부 건물, 및 역사적인 브리감 영의 생가, 라이언 하우스와 비하이브 하우스를 연결하는 광장과 연계되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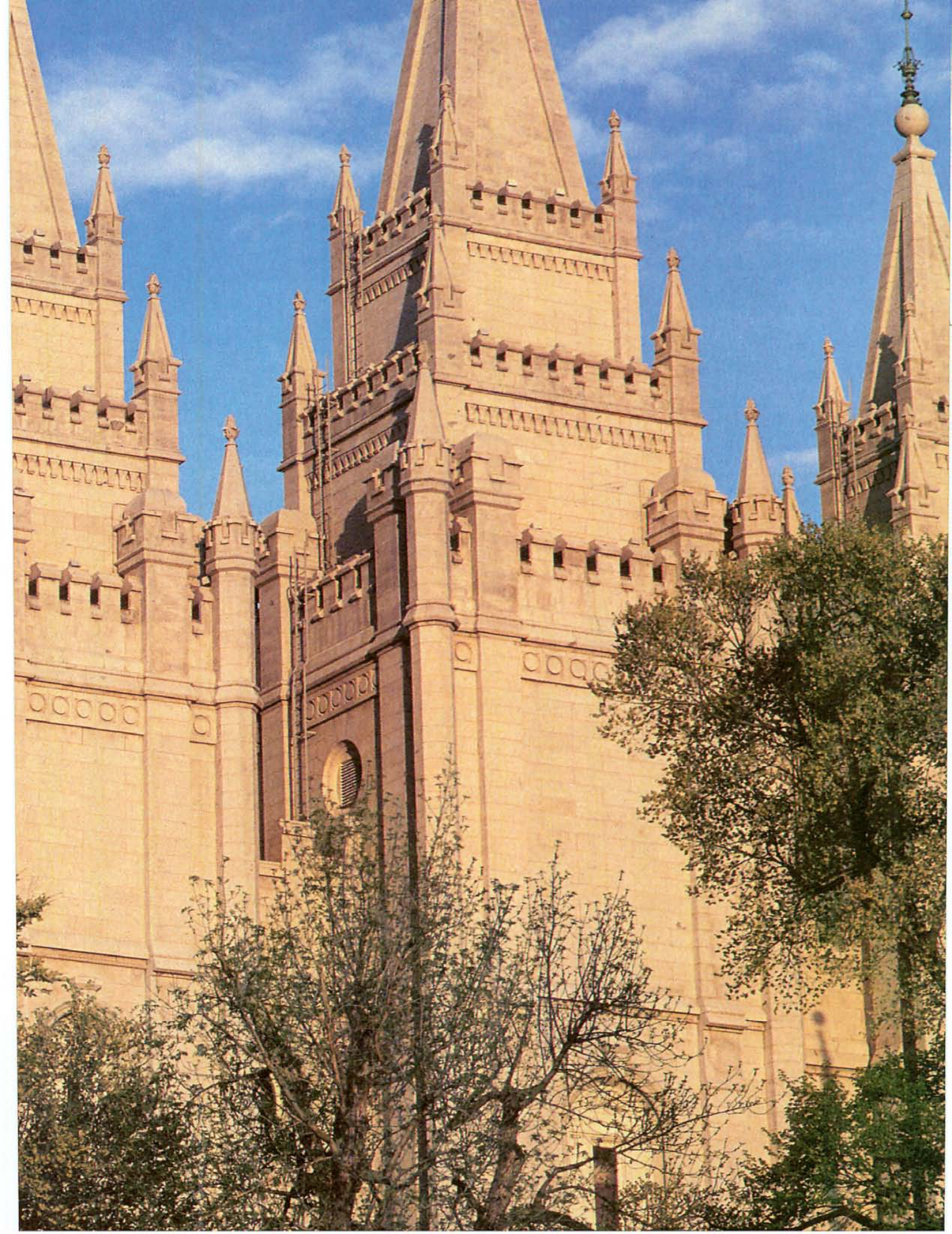
오늘날의 건축물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템플 스퀘어에 세워진 첫 건물은 벽이 없고, 잡목림으로 지붕을 이은 정자였다. 성도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버내클이 완성되기 전에 만나던 장소로서, 잡목림 또는 나무가지로 지붕을 덮고, 기둥만 세운 벽이 없는 임시 건축물로서 성도들에게 햇볕을 피할 그늘을 제공해 주었다. 교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물의 크기와 수도 늘어났다. 교회의 계속되는 성장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199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공고한 템플 스퀘어의 바로 북쪽 부지에 건축될 "그레이트 홀"의 건축 발표에서 드러난다. "경배의 집"이 될 그 홀은 연차 대회와 다른 적절한 행사에 수천 명이 참석할 수 있게 계획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독자가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템플 스퀘어 및 관련 장소들을 사진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봄 정원은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고 교회 수석 정원사 피터 래시는 말한다.

위: 어셈블리 홀. 오른쪽: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에서 온 제니퍼 윤정 자매; 솔트레이크 성전의 일몰.



여름

맨 왼쪽, 위로부터: 교회 본부 건물의 기둥들; 템플 스퀘어 문 묘부; 매년 심어온 300가지 종류의 꽃들.
왼쪽: 태버내클 바깥의 마로니에.
맨 위: 교회 본부 건물의 남쪽.
위, 오른쪽: 아론 신권 회복 기념비의 묘부; 템플 스퀘어 방문자들.

오른쪽: 헝가리에서 온 이르네 벤체 자매.
아래: 미국 버몬트에서 온 셰리 엘 보드먼 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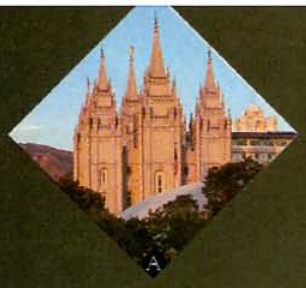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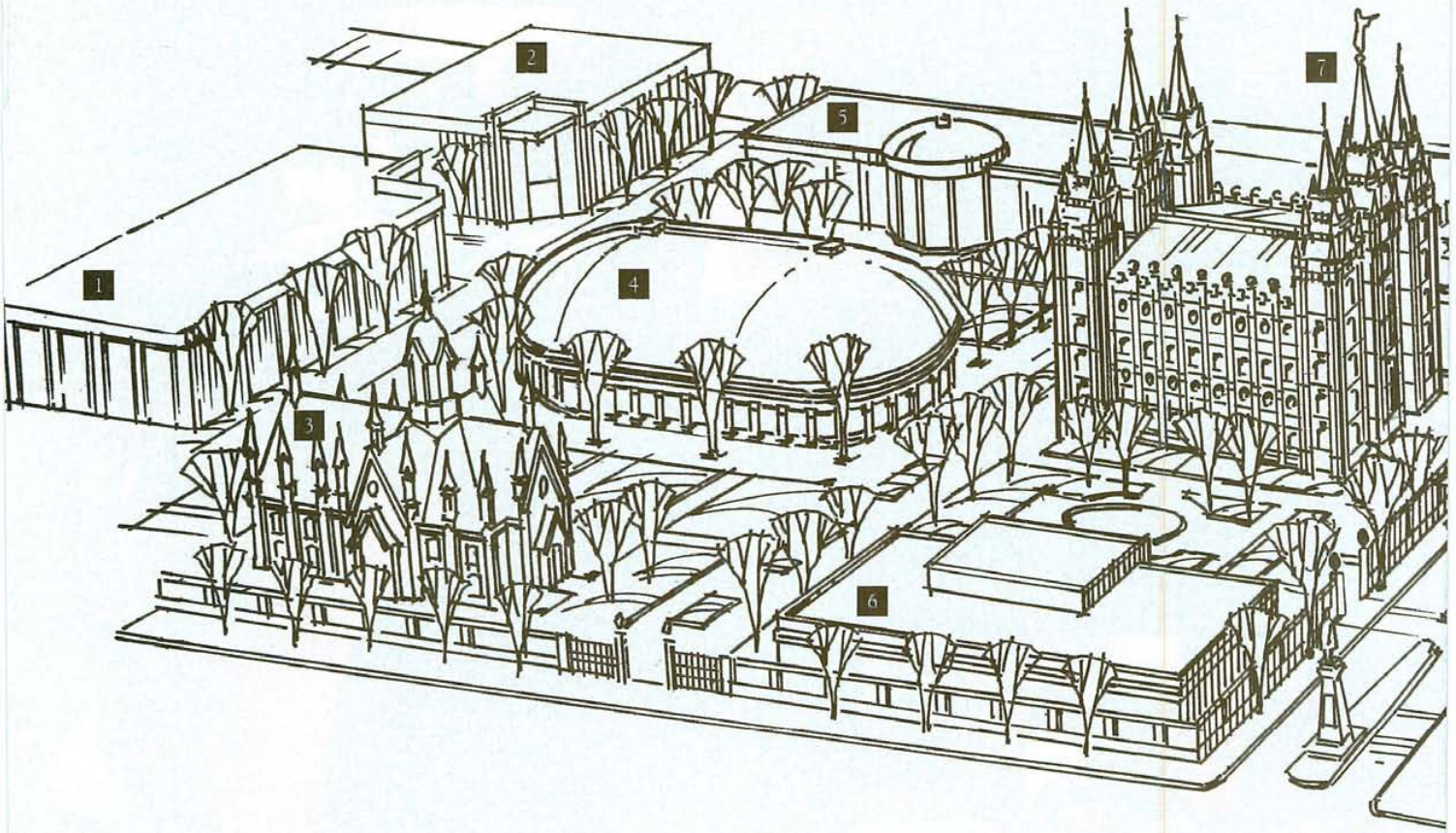
사진 촬영: 브랜트 리빙스톤

사진 촬영: 브랜트 리빙스톤

템플 스퀘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와 건물

1. 가족 역사 도서관
2.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
3. 어셈블리 홀
4.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5. 북 방문자 센터
6. 남 방문자 센터
7. 솔트레이크 성전과 성전 부속 건물
8. 요셉 스미스 기념관
9. 상호부조회 건물
10. 교회 본부 건물
11. 교회 행정 건물
12. 라이언 하우스
13. 비하이브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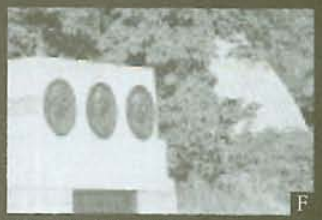
입체 공간 지도: 고든 스마트; 교회 건축부의 케리 니엘슨이 만든 전자 영상 지도에 기초를 둠

D

사진 촬영: 타므락 햄블린

E

사진 촬영: 브랜트 리빙스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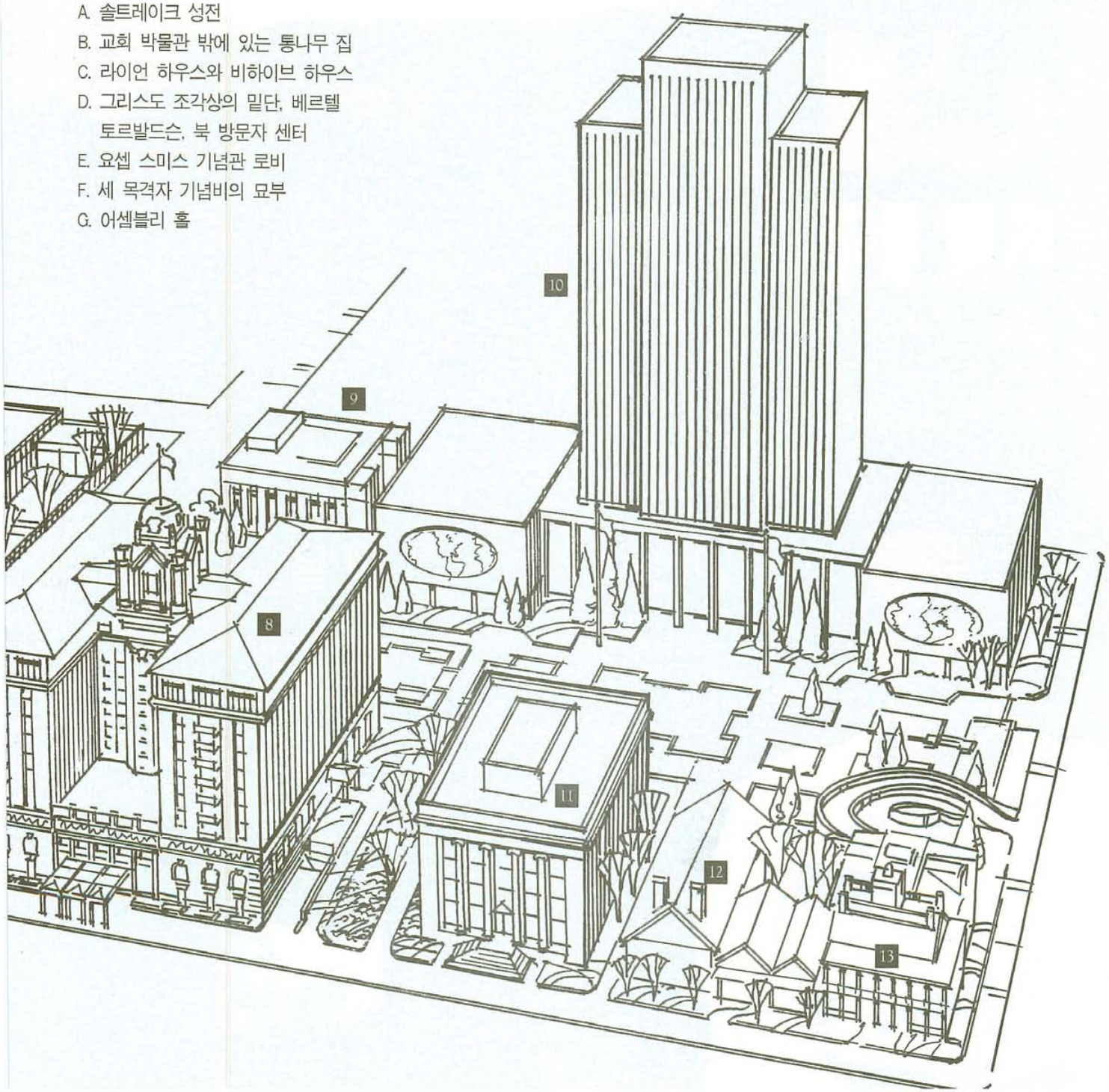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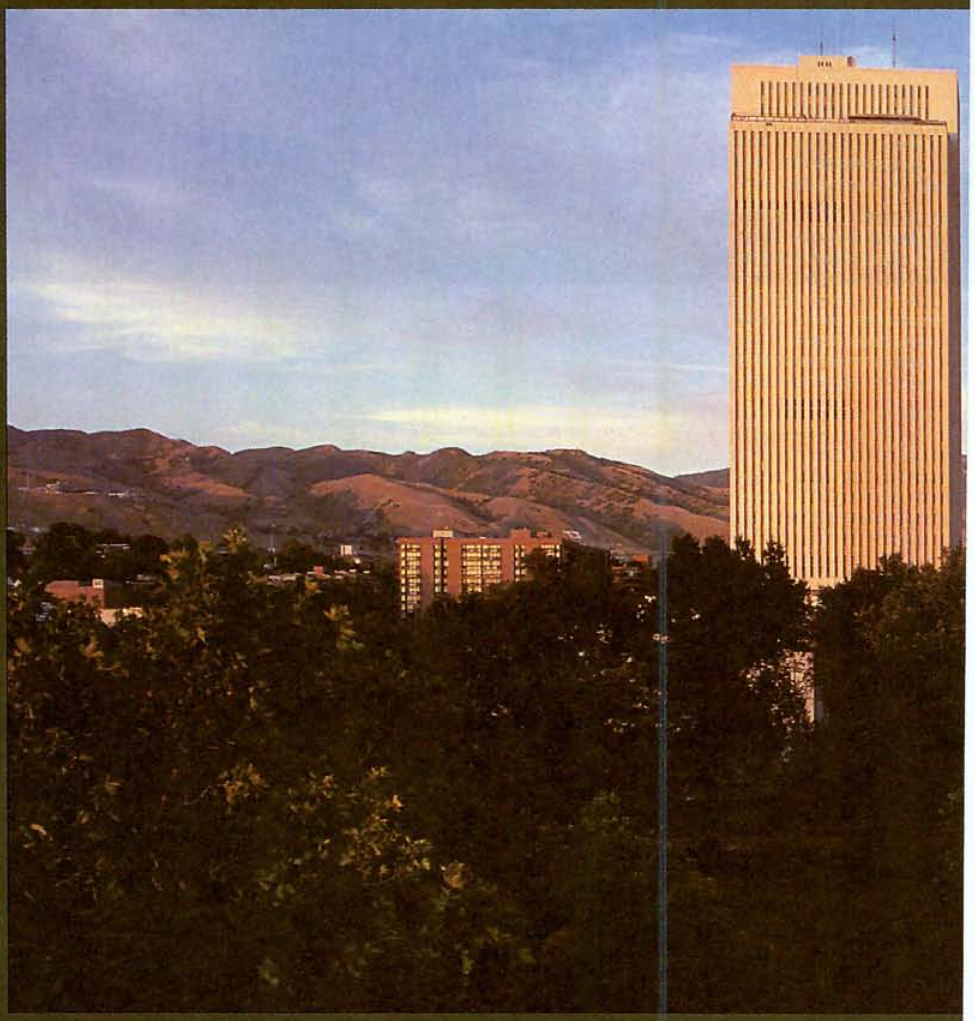
사진 촬영: 웰든 앤더슨

G

사진 촬영: 웰든 앤더슨

A. 솔트레이크 성전
B. 교회 박물관 밖에 있는 통나무 집
C. 라이언 하우스와 비하이브 하우스
D. 그리스도 조각상의 밑단, 베르텔 토르발드슨, 북 방문자 센터
E. 요셉 스미스 기념관 로비
F. 세 목격자 기념비의 묘부
G. 어셈블리 홀





가을

왼쪽, 맨 위로부터: 가을 단풍; 상호부조회 건물 입구; 프랑스에서 온 네제라호우 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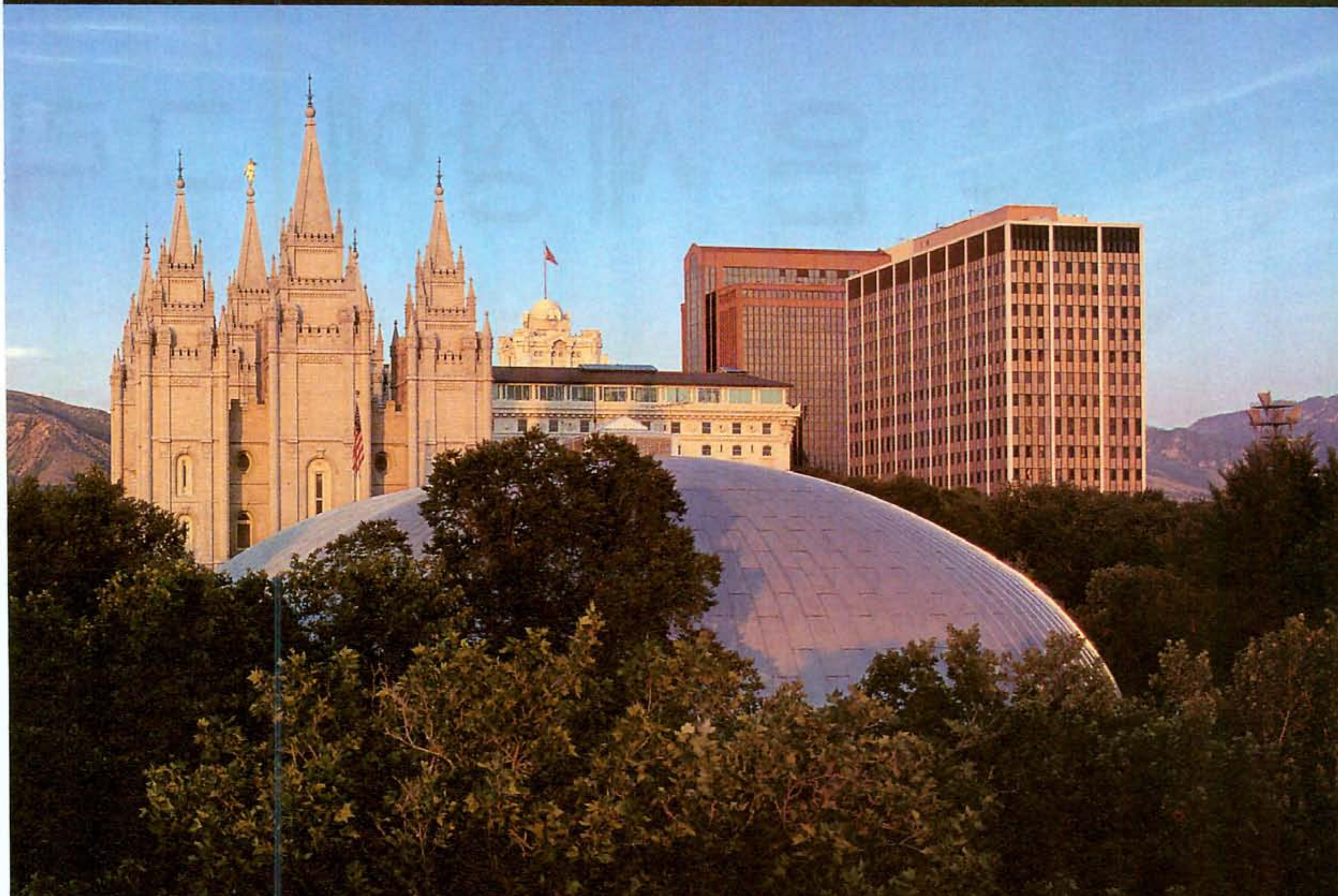
오른쪽 위로부터: 교회 본부 건물, 솔트레이크 성전, 둥근 지붕의 태버내클 너머로 보이는 요셉 스미스 기념관 꼭대기, 두 개의 백화점 건물

아래: 갈매기 기념비

겨울

아래: 서리로 덮인 여름의 찬란함을 생각나게 하는 광경.

오른쪽: 솔트레이크 성전의 겨울 모습; 배경에 남 방문자 센터가 보이는 갈매기 기념비의 밑단; 달이 맞이하는 겨울의 일출; 서리로 덮힌 나무가지 그물 사이로 비치는 햇살



VISITORS' CENTER SOUTH

온 세상에 그리

솔트레이크 선교부 지역은
솔트레이크시티 시내에서도 불과
얼마 안되는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매년 오 백만 명의
방문자들이 방문하는 교회에서 가장
국제적인 선교부 중의 하나이다.

매리앤 마틴데일과
제니퍼 그랜트 애브셔

박순주 자매는 16세에 한국 서울에서 침례 받았다. 그녀는 21세가 되었을 때, 많은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독과 상의한 후, 그녀는 감독과 접견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회원인 그녀의 부모는 딸이 내린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비탄해 했다. 그녀가 솔트레이크 템플 스퀘어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녀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을 향해 비행기에 올랐다.

박 자매는 기내에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으며,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그녀를 사랑하며 선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녀의 소망을 이해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템플 스퀘어는 박순주 자매와 그녀의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도 구세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배우기 위하여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에 함께 모인다. 해마다 오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템플 스퀘어를 방문하고 있으며, 약 200여 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안내한다.

이곳에서는 장로 복음 선교사들이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선교부의 독특한 점이다. 여러 부부 선교사들이 교회 봉사의 일환으로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므로, 이 템플 스퀘어에는 연로한 장로들이 조금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전시간을 봉사하지 않는다. 전시간 봉사하는 복음 선교사들은 모두 자매이다.

타히티, 피레에서 온 토리 자매가 템플 스퀘어에 온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그 자신의 언어로"

솔트레이크 성전, 태버내클, 어셈블리 홀, 두 곳의 방문자 센터, 여러 개의 개척자 기념비 및 요셉 스미스 기념관 등을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인 선교부의 몇몇 구역 안에서 이 자매들은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문자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 되리

스도를 알리는 선교부

라."(교리와 성약 90:11)는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에서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세계 어느 지역의 선교부보다도 다양한 언어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 이 선교부가 교회에서 가장 국제적인 선교부일 것이다. 작년에 장거리 버스 여행자들을 실은 버스가 30,000회 이상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반 이상이 비영어권 여행자들을 태우고 있었다. 언제나 30여 개의 언어가 템플 스퀘어에서 사용된다.

프랑스 니스에서 온 네제 라호우 자매는 그녀가 말할 수 있는 5개 언어, 즉 불어, 스페인어, 영어, 힌두어 및 아프리카어를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템플 스퀘어로 부름을 받았을 때 흥분했다. 방문객이 절정을 이루는 여름 동안, 그녀는 매일 같이 5개 국어로 말한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온 미레일리 반 톤도 자매 또한 아프리카어, 불어, 네델란드어, 영어, 독일어, 등 5개 언어를 구사한다. 그녀는 최근에 남아프리카에서 온 한 젊은 여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반 톤도 자매는 모국어로 교회에 대하여 그 방문자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 젊은 여성은 교회가 자신의 나라에 있다는 것과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놀랐고 흥분했다.

"매우 잘 찾는 사람들"

그들 선교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온 이 젊은 여성과 같다. 집으로 되돌아가 다른 선교사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러한 전도 방법은 솔트레이크 템플 스퀘어 선교부를 색다르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이유이다. 템플 스퀘어 선교사들은 주로 견학 투어를 안내하고 그 곳을 소개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방문자들에게 가르친다. 그들은 일반적인 선교사 복음 토론을 가르치지 않으며 개종자들이 침례 받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교회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선교부에 보낸다.

"다른 선교부에서는 찾고, 가르치고, 침례 주고 우정 증진을 하지만, 우리는 찾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아주 잘 합니다."라고 이전의 템플 스퀘어 선교부장이었던 로버트 찰스 위트 형제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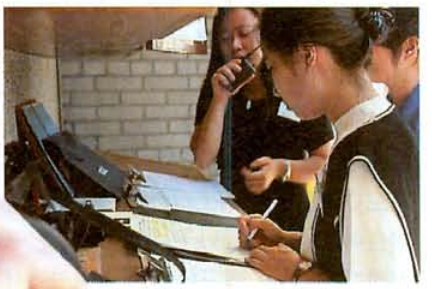
미국 사모아에서 온 체리 레이드 자매는 자매 선교사들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많은 간증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들을 강화시키고 고양시키는 주님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페루 리마에서 온 에리카 레카로스 자매는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의 많은 것들을 바치고도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힘겨운 선교부입니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영을 나누고 간증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템플 스퀘어에서 수행하는 책임이 너무도 독특하기 때문에,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는 모든 선교사는 18개월 간의 선교 기간 중 4개월을 미국의 다른 선교부에서 보낸다. 이 기간 동안 일반적인 선교사 토론을 하고 교회의 회원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밀란 선교부, 노바라 지부 출신의 티지아나 바시리카 자매는 뉴욕 시의 뉴욕 사우스 선교부에서 4개월 동안 봉사했다. 뉴욕은 유타와 크게 달랐지만, 이곳에서도 전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바시리카 자매에는 템플 스퀘어를 상기하게 되었다.

맨 왼쪽: 라오스에서 온 메이-니아 자매가 그녀의 간증을 전하고 있다.
왼쪽: 미국 워싱톤에서 온 수잔나 카르고 자매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멜리사 호크 자매가 복지 광장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아래 왼쪽: 리투아니아, 빌리어스에서 온 로나 매쉬니크 자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 한 문화권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앰버 깁스 자매가 태버내클에 있는 방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맨 아래: 홍콩에서 온 와이-만 월마 정 자매와 한국에서 온 황문영 자매와 최민정 자매가 자매들의 교대를 편성한다.



위: 한국에서 온 최민정 자매는 "제 간증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왼쪽: 독일, 할레에서 온 수잔 코넬 자매는 이곳에서 봉사하는 자매들이 그처럼 행복해 하는 이유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래:* 페루, 리마에서 온 에릭카 레카로스 자매와 통가에서 온 투포우 내아타 자매가 함께 공부하고 있다.

템플 스퀘어에서의 막후 작업

템플 스퀘어에서는 선교부의 조직을 정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막후 작업이 많이 있다. 다행히도, 선교 본부가 템플 스퀘어 내에 있으므로 선교사들은 매일 그들의 선교부장과 만나 함께 일할 수 있다.

자매들의 일정이 각기 서로 다른 준비의 날, 교대, 언어, 훈련, 견학 투어 등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계획된다. 150여 가지 이상이나 되는 구체적인 임무를 위하여 선교사들이 훈련되고 서로 다른 여러 시간에 임무가 배당된다. 이러한 임무들 중 몇 가지로는 방문자들이 템플 스퀘어를 드나들 때 인사하기, 방문자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종류의 견학 투어 안내하기, 안내대에서 질문에 대답하기, 가족 역사 센터를 이용하여 가족 역사 정보를 찾고자 하는 방문자 돕기, 교회에서 제작한 개척자의 용기를 그린 영화, '유산'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등이 포함된다.

템플 스퀘어 선교사들은 또한 좀더 봉사하고자 매주 여러 시간을 헌신하기도 한다.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복지 광장에서 일하기를 자청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전세계의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헌옷을 분류하고, 감독의 창고에서 방문자를 돕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통조림

공장이나 낙농장에서 일한다.

이러한 경험은 리투아니아 빌리어스에서 온 로나 매쉬니크 자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었다. 그녀는 한 러시아인과 모국어로 대화하던 중에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돕기 위하여 복지 광장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 러시아인은 교회가 베푼 친절을 어떻게 해서든 보답하겠다고 약속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길을 떠났다.

모든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템플 스퀘어 선교사들도 매주 하루 준비의 날을 갖는다. 그들의 선교부 또한 다른 선교부와 마찬가지로 구역 모임과 지역(zone) 대회를 가지며 이동도 있다. 이동은 아파트, 지역(zone), 동반자, 준비의 날, 또는 교대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 선교부의 모든 복음 선교사가 자매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나 훈련자들이 모두 자매이다. 이 선교부의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자매들이 모든 시간을 동반자와 함께 나란히 서서 일하며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템플 스퀘어에서 동반자로서 함께 봉사하면서도, 종종 각기 다른 임무를 받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

연차 대회, 태버내클 합창단 리허설과 공연, 어셈블리 홀에서 열리는 음악회 등과 같이 영을 고조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템플 스퀘어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충만함이 있다. 선교사 자매들은 한 달에 두 번씩 준비의 날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통가에서 온 투포우 내아타 자매는 그러한 감동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템플 스퀘어 선교부는 육체적으로는 그리 힘들지 않지만, 영적으로 아주 힘든 곳입니다. 항상 미소짓고, 영을 지니며, 모범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온 라이 종 왕 자매는 광동어를 사용하는 일곱 명의 방문자들을 위하여 견학 투어를 안내하고 있었다. 방문자 가운데 두 사람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 투어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비평을 했다.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 대하여 선입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경험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왕 자매는 영을 강하게 느껴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으며, 다른 방문자들도 그러한 영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템플 스퀘어에서 봉사하는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공통된 것은 아마도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다. 템플 스퀘어에서의 거룩한 단합의 힘은 바로 주님의 영이다. 선교사들이 서로 다른 여러 문화권에서 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템플 스퀘어에서 함께 봉사하는 동안, 그들은 참으로 한마음이다.

"템플 스퀘어에서의 봉사 기간이 끝날지라도,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저의 이름표를 달고 있을 것이며, 저의 선교 사업은 제 인생을 통해서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전세계 도처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생각을 대변하여 레카로스 자매는 말한다. □

통가에서 온 레시엘리 자매는 템플 스퀘어에서 겪은 가장 훌륭한 경험은 간증을 전하고 사람들이 영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템플 스퀘어의 성탄절,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매년 성탄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템플 스퀘어의 불빛을 바라본다. 1963년에 시작된 연례 성탄절 장식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더욱 정교해져 가고 있다. 장식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와 관목숲과 잔디밭에 약 300,000개의 장식용 전구를 매달기 위하여 8월에 일을 시작한다. 장식의 중심부는 실물 크기의 구유 장면과 성서에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의 내레이션이다. 태버내클, 어셈블리 홀, 또는 방문자 센터에서 매일 밤 성탄절 음악회가 공연된다.

매년 수백 만 명의 방문객들이 템플 스퀘어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의 아름다움에 감동한다. (“템플 스퀘어”, 34쪽;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교부”, 44쪽 참조)

28979 89320 9